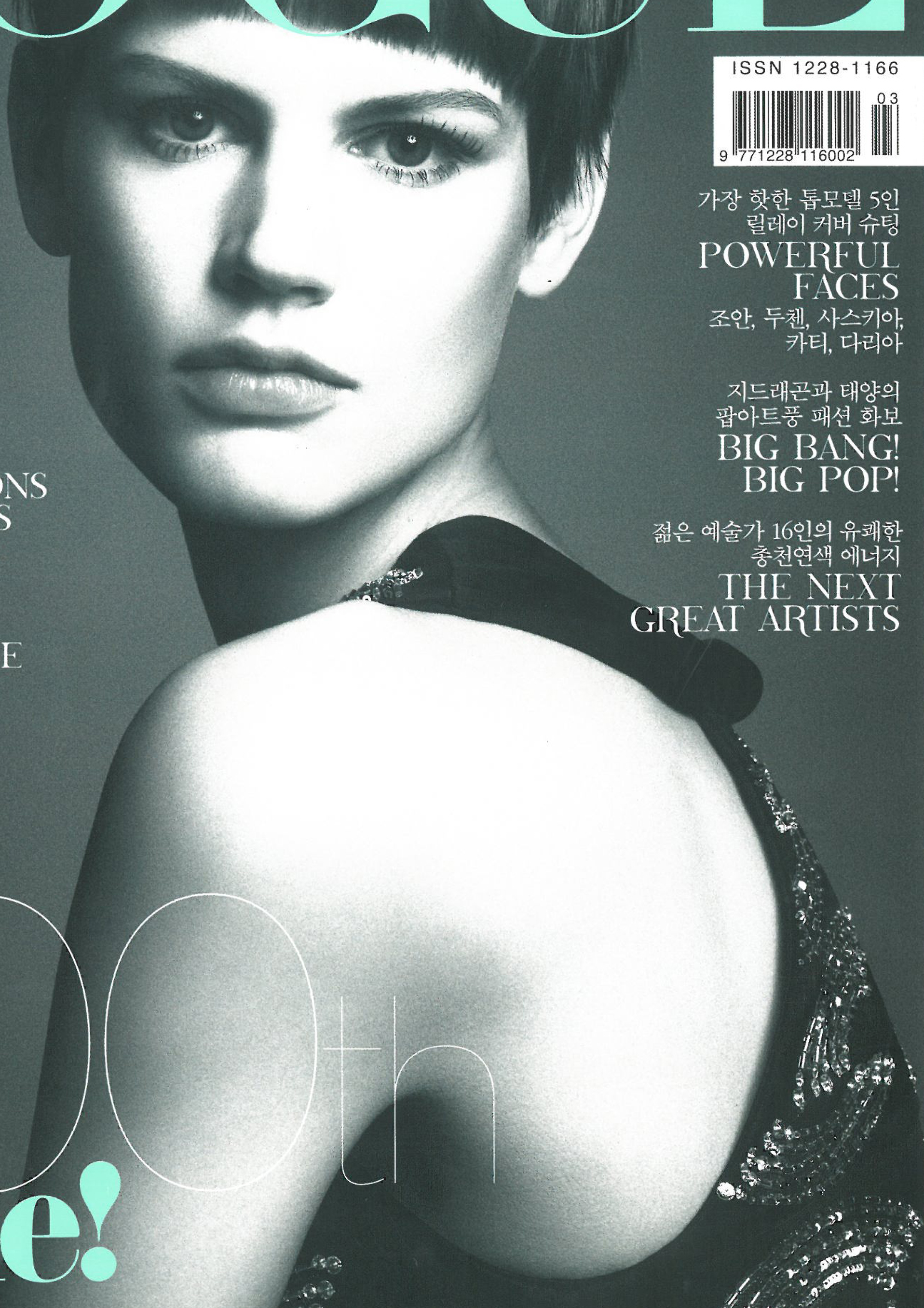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MAR
2013
통권 200호
7,500원



ISSN 1228-1166
03
9 771228 116002

가장 핫한 톱모델 5인
릴레이 커버 슈팅
POWERFUL FACES
조안, 두첸, 사스키아,
카티, 다리아

지드래곤과 태양의
팝아트풍 패션 화보
BIG BANG! BIG POP!

젊은 예술가 16인의 유쾌한
총천연색 에너지
THE NEXT GREAT ARTISTS

200호 기념 별책부록
〈IMAGES FROM 100~199 ISSUE〉
소장 가치 만점의
〈보그〉 아카이브 사진집

200호 기념 프로젝트
CONGRATULATIONS & CELEBRATIONS
전 세계 패피 200명을 촬영한
〈보그〉 스페셜 포토월

200호 기획 특집
WOMEN in VOGUE
〈보그〉를 빛낸 대한민국
여성 파워 120명

the 200th issue!

불량한 미술가

미술가 김홍석은 '유머'라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펙터클한 현대사회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오는 3월 7일,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리는 〈좋은 노동, 나쁜 미술〉전은 현대 미술가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다.

'토끼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북한 출신 노동자 이만길 씨입니다. (중략) 이분의 성공적인 연기를 위해 만지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주십시오." 지난해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된 김홍석의 전시가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토끼 옷을 입은 사내가 차가운 전시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토끼의 정체를 알리는 불편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만길 씨는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받고 고용된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말이다. 김홍석의 전시에 종종 등장하는 익명의 존재들-이주노동자 가족으로 소개되는 '브레멘 음악대', 노숙자처럼 이불을 뒤집어쓴 '미스터 김'-은 실제로는 스펀지와 고무로 만들어진 인형일 뿐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 무대와 국내외 전시를 통해 한국 미술계의 '문제적 작가'라는 수식어를 얻은 김홍석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유머'라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펙터클한 현대사회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60년대 프랑스 상황주의자들이 잡지, 광고 등의 이미지를 가져와 오히려 대중문화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는 미술가로서 자신의 상황을 십분 활용한다. 미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작품에 차용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실물보다 카탈로그를 통해 더 자주 접하는 해외 유명 작가의 카탈로그 속 작품 이미지를 확대 출력해 전시하는가 하면, 제프 쿤스의 〈풍선 강아지(Balloon Dog)〉를 참조해 검정 쓰레기 봉투로 만든 〈개 같은 형태〉를 제작하는 식이다. 수동적인 전시 관람 형태를 빗댄 한 편의 쇼, 〈사람 객관적-나쁜 해석〉전에서는 전시 가이드까지 작품의 일부로 배속시켰다. 노동의 방, 태도의 방, 은유의 방이라 이름 붙여진 세 개의 방은 각각 가이드의 설명을 달리했지만, 사실 각 방에 설치된 작품은 거의 동일했다. 앞서 언급한 〈This is a Rabbit〉은 산티아고 시에라(이 스페인 작가는 68명의 한국인에게 일당 3000원에 고용됐다는 사실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시장에 앉아 있게 했다)를 비롯,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예술의 이름으로 도구화한 미술가들의 작품을 비튼 것이다.

3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리는 〈좋은 노동, 나쁜 미술〉전 역시 현대미술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김홍석식 블랙코미디다. "현대미술에서 순전히 작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만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며칠 전 막을 내린 전시 철거 작업으로 공사판이 된 전시장에서 김홍석이 물었다. 산업화된 요즘 사회에서 기계나 전문화된 인력의 도움 없이 저 혼자 탄생하는 작품은 드물다. 기계음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인부들은 전시를 준비할 때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미술이란 게 그 창작 과정을 가만히 뜯어보면 가내수공업 수준이거든요. 하다 못해 '어시스턴트 월급은 얼마를 지급하는 게 적당한가'부터 크고 작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김홍석은 재미있는 실험을 기획했다. 먼저 세 명의 비평가를 초대해, 자신의 신작 두 점에 대한 비평을 부탁했다. 노동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러 작품에 숨은 거창한 주제의식이나 철학적 의미에 관한 토론은 배제했다. 대신 제작 배경에 관한 소소한 내용들, 이를테면 재료, 제작비, 타인의 도움 여부 등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우스꽝스런 실험을 위해 제작된 작품들의 정체는 더욱 황당하다. 첫 번째는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 따위로 만든 '자소상'이다. 김홍석의 작품에 단골로 출연하는 이들 부자재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고가의 제품들과 달리, 잠시 다른 물건을 담는 데 이용됐다가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불우한 일상의 조연들이다. "그런 태생 자체가 꼭 나의 삶 같은 거죠. 현대인은 사회라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덕분에 이들 '지나가는 쓰레기 1, 2'는 작품의 주연으로 등극했다. 재미있는 건 이러한 자소상과 쓰레기 봉투로 만들어진 각종 동물, 박스와 매트리스로 이뤄진 탑 〈기울고 과장된 형태에 대한 연구-Love〉 등이 사실은 부자재의 형태를 본뜬 브론즈 혹은 레진 주조물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작품은 걸레질로 그린 그림이다. 예술적 걸레질을 위해 테크니션까지 투입했다. 인력시장을 통해 일당 8만원에 고용된 파출부다. "처음엔 황당해 하시더군요. 제 소개를 하고, 힘이 달려서 그러니 같이 좀 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4~5시간가량의 작업이 끝난 후, 그는 2만원을 더 보태 10만원을 드렸다. 작가는 특히 이 금액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가 이상을 지불하고 그 사실을 밝혔으니 그의 작품은 착한 미술일까?

숙제를 받아 든 비평가들은 전시 카탈로그에 이에 대한 비평문을 싣고, 그들의 강연 장면은 비디오로 촬영돼 작품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이라 명명된 이 작은 풍자극을 통해 관람객에게 평가 받는 건 김홍석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의 비평이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지난해 '미디어시티서울' 총감독을 맡은 유진상 교수, 작가이자 비평가로 활동하는 서현석 교수, 오랜 벗이기도 한 미술가 강석호는 꼼짝 없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상한 비평가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물론 이들은 작가의 악의 없는 장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김홍석이 자신의 작품을 희화화시켜 드러내고자 하는 건 이상한 비평이나 나쁜 미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불편한 진실이다. 풍자의 대상이 된 미술계의 틀에 박힌 관행과 윤리적 문제점들은 미술관을 벗어난 일반 대중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된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주말엔 쉬고, 학생은 학교에 가는 반복된 일상은 개인의 주체성이 결여된 사회적 시스템이다. 뻔한 얘기 같지만 김홍석은 길에서 주운 동전 하나가 주는 기쁨처럼 사소한 우연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건 조작된 일상이 아니라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냥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루한 일상에 웃음 폭탄을 던지는 불량한 미술가의 착한 메시지다. V

에디터 / 이미혜

KANG TAE HOON